

'7600개의 열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시민성금 결실

모금 44일만에 7600건·5억3천여만원 모금... 1차분 4억원 지급 광복 78주년 맞아 광주 양금덕 할머니·이춘식 할아버지에 1억씩 내년 6월까지 '10억원 모금' 지속...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이 78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에게 전달됐다.

이들은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사죄가 먼저라는 이유로 우리 정부의 '제3차 변제' 해법에 따른 판결금 수령을 거부해 온 강제징용 피해자들이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지난 12일 서울시 경복궁 인근에서 개최된 '광복 78년 8·15범국민대회'에서 '역사정의 시민모금 전달식'을 열었다. 이 단체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과 전국 600여개 시민단체가 소속돼 있다.

시민모임은 이날까지 모은 성금(총 7600여건, 5억 3000여만원) 중 1차분 4억원을 지급했다. 성금을 받은 생존 피해자는 광주에 사는 양금덕(93) 할머니, 이춘식(103) 할아버지이다. 故 박해옥 할머니, 故정창희 할아버지는 유족들에게 지급됐다. 이번 성금은 지난 6월 29일 단체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국민 성금을 모아 주겠다고 시작한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이 시작된 지 44일만의 결실이다.

시민모금은 우선 1차분 성금을 전달하고 내년 6월까지 목표액(10억원)을 달성할 때까지 모금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시민모임은 전달식 행사에 앞서 모금 기부자들과 피해자들의 자택에 찾아가 모금액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양 할머니와 이 할아버지는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일본이 사죄하고 배상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양 할머니는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성금을 모아주셔서 감사하다", 이 할아버지는 "국민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양금덕 할머니 등은 지난 2018년 대법원 승소 판결에 따른 일본의 피해 배상이 지체되자 우리 정부가 마련한 '제 3차 대위변제'를 통한 판결금 수령을



지난 7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광주시 서구 양동에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집을 방문해 '역사정의의 시민모금' 성금 1억원을 전달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거부했다. 당시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피해 배상 판결을 내려 승소한 뒤 전범 기업에 배상금 채권을 가진 원고는 총 15명이었다.

이 가운데 11명은 지난 3월 정부의 '제 3차 대위변제'안을 받아들여 배상금을 받았고 양 할머니 등 4명은 현재까지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피해 당사자는 물론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도 정부는 지난달 '제 3차 대위변제'안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원고 4명에게 공탁을 신청했다. 하지만 광주 지방법원 등 유족이 거주하는 지역 법원의 공탁관들이 정부의 공탁 신청을 '불수리' 처리했다.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에 불복한 정부는 법원에 잇따라 이의신청을 했고,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탁관 처분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한 법원의 심리절차가 진행중이다.

한편 시민모임은 78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2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 4층, 광주NGO지원센터 시민마루에서 '역사정의의 시민모금 전달식 및 응원회 자리' 행사를 개최한다. 생존 피해 당사자인 양 할머니, 이 할아버지가 직접 참석해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국인 시민모임 이사장은 "광복절을 앞두고 이 행사를 통해 광주시 생존 피해자 두 분과 가족들을 모시고 그동안의 시간을 돌아보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시 '위안부 기림의 날' 행사 연다

시, 오늘 시청 앞서 '현화의 장'... 내년부터 추진위 결성해 '제대로'

광주시가 개최를 취소해 논란이 일었던 광주시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 행사(8월 2일)가 축소돼 치러진다.

광주시는 "광주시청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14일 기림의 날 행사를 열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현화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광주일보가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가 없고 행사 참여 시민단체가 없다는 이유로 광주시가 행사를 열지 않기로 한 것을 지적한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광주시는 지난 11일 광주시청 여성가족국장실에서 시민단체 관계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올해 행사는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축소한 형태로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기림의 날 추진위원회'를 통해 체계적인 행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시는 "기림의 날을 앞두고 계획적으로 행사를

준비하지 못했다"며 "역사인식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기림의 날 정신을 온전히 이어받는 행사를 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도 "우리 사회의 아픈 역사를 시민들이 잊지 않도록 광주시가 적극 나서 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국인 일제강제동원 이사장은 "단순히 행사 개최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지역민들에게 의미를 줄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지속가능하고 지역민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 시립점자도서관 오늘 개관

남구 사동에 어린이 열람실·녹음실 등... 재활교육·인문학 강좌도

시각 장애인을 위한 광주 시립 점자도서관이 14일 문을 연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점자도서관은 남구 사동지상 4층 규모로 책마중 공간, 어린이 열람실, 서고, 대면 낭독·점자 자료 제작을 위한 녹음실, 점자 인쇄실, 다목적실 등을 갖췄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국비 7억 5900만원 등 19억원을 들여 점자도서관을 완공했으며, 공식 개관식은 독서의 달인 다음 달에 열기로 했다.

점자도서관에서는 일반 도서, 전문 서적 등을 점자와 음성으로 변환하는 도서를 열람하고 대출할 수 있다. 점역 교정사, 사서, 사회복지사 등이 상주하면서 시각 장애인의 독서 활동 등을 돕는다.

점자·정보화 기기를 활용한 재활교육, 인문학 강좌 등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광주시 시각장애인연합회가 2025년 9월까지 위탁 운영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북구, 전국 유소년 드론스포츠대회 개최

19일 북구종합체육관

광주시 북구는 오는 19일 북구종합체육관에서 '북구청장배 전국 유소년 드론스포츠대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전국 규모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4차산업 인재 발굴과 드론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전국 초·중학생과 드론 동호인 등 총 300명이 참여, 4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

종목은 '드론축구'와 적외선 미사일로 상대 기체를 추락시키는 '배틀드론', 상대보다 먼저 골대를 통과하는 '스피드드론'과 자율 비행경로를 구성해 미션을 수행하는 'SW코딩드론' 등으로 구성됐다.

탑진 종목(드론축구, 배틀드론)은 1위부터 4위까지, 개인전(스피드드론, SW코딩드론)은 1위부터 8위까지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드론 드라이브 서킷존, 드론 특목블록 제작 등 다양한 체험부스와 이벤트도 펼쳐진다.

/김다인 기자 kdi@

광주·전남 제78주년 광복절 행사 잇따라

고려인마을 '봉오동 전투' 재현 등 역사문화체험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광주·전남 곳곳에서 다채로운 광복절 경축 행사가 펼쳐진다.

광주시는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연다.

시는 이날 독립 유공 시민 이은식(81)·박해현(64)·이상민(56)씨 등 3명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하며 비모임 댄스팀 '빛고을 댄서스'의 기념 공연도 만나볼 수 있다.

또 광주시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1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시청 시민홀에서 '빼앗긴 세월, 그 날의 조각난 기억'을 주제로 강제동원 피해자 사진전을 연다. 사진전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31명과 위안부 피해자 3명의 사진 및 사진이 전시된다.

전남도는 같은 날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독립유공자 등 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

전남도는 행사에서 1920년 3월 나주시 남상공

원 내 나주 신사 벽에 태극무늬와 대한독립만세 등을 썼다가 체포당한 고(故) 남상홍 선생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한다. 표창장은 부산에 거주 중인 남선생의 딸에게 대신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전남도는 민족정기 선양 등에 기여한 광복회원 등 3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고려인마을도 시민참여형 퍼포먼스, 역사문화체험 등 역사문화관광콘텐츠를 담은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15일 오전 11시 30분에는 연해주 항일독립로부터 흥남도 공원까지 이어지는 시민참여형 퍼포먼스 '광복의 완성 봉오동전투'를 공연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보험사기 ZERO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